

서울반도체, LED가로등 시장 공략

서울반도체(대표 이정훈)는 고집적 소자기술을 적용한 MJT 4040 LED(Light Emitting Diode) 패키지 신제품을 출시했다고 3월14일 발표했다.



LED 가로등에 사용되는 해당 제품은 2-3kg에 달하는 컨버터 없이 교류상태에서도 구동할 수 있어 가로등의 무게를 줄일 수 있으며, 기존제품과 비교해 전력효율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마티 윌리엄스 서울반도체 글로벌 마케팅 담당은 “해당제품은 연평균 1조원에 달하는 LED 야외조명 모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한 것으로 가로등, 주차장등, 보안등 등에 적합하다”며 “현재 중국과 남미 등에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학저널 2013/03/14>